



‘동북·북촌 풍력’ 확장 동의안 심의 진통 예상

제13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 23일 개막
아시아 크루즈 통합 플랫폼 구축 방안 논의

에너지공사 면적 30% 늘리고 시설 용량 60% 확장 계획
사업부지 멸종위기 1급 고사리삼 서식… 환경단체 반발

제주도가 지난 2015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동북·북촌 풍력발전단지를 확장하기 위해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사업 부지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제주고사리삼 서식지가 있고, 환경단체와의 공동 조사도 수개월째 이뤄지지 않아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 ‘동북·북촌풍력발전단지 확장 조성사업 지구지정 (면적) 변경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동의안은 21일 개최하는 제453회 임시회를 건너뛰고 9월로 예정된 제454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가능성이 크다.

동의안은 제주시 구좌읍 동북리

에 조성된 동북·북촌풍력발전지구 면적을 101만237㎡에서 144만3057㎡로 30% 가량 확장해 높이 125m 짜리 풍력발전기 4기를 추가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북·북촌 풍력발전지구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지난 2015년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한 도내 최초의 육상 풍력발전단지로 공사 측은 이번 확장을 위해 사업비 41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풍력발전기 4기가 추가 시설되면 동북·북촌풍력발전지구 시설 용량은 30MW에서 48MW로 60% 증가한다. 공사 측은 풍력발전사업 규모가 늘어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1만8000여t 감축할 수 있고 재생에너지 비중도 확대돼 탄소중립 2035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확장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고사리삼이 사라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사 측은 지난 2024년 자체 조사한 결과 사업 부지에는 고사리삼 서식지 105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측은 고사리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 시설과 도로 등을 서식지와 50m 이격해 시설한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는 이같은 조치로는 고사리삼을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곶자왓사람들 관계자는 “고사리삼은 주변 환경에 워낙 민감해 이식(옮겨심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50m 이격해 공사한다고 한들

주변 환경 자체가 변화하는 건 막을 수 없고, 고사리삼 생존에도 큰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또 이 단체는 공사 측이 조사한 것보다 더 많은 고사리삼 서식지가 사업 부지에 분포한다고 주장했다.

공동 조사도 난항을 겪고 있다. 동의안이 제출되기 전 지난 3월 풍력개발심의위원회는 곶자왓사람들의 지적을 고려해 공사와 해당 단체가 부지 주변 생태계에 대한 공동 조사를 협의하는 조건으로 가결했지만 조사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합동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곶자왓 측은 멸종위기종뿐만 아니라 모든 법정 보호종에 대한 4계절 조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공사 측은 조사 범위와 기간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 외국인직접투자 반등

상반기 실적 172% 증가
신규 기업 유입 효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제주에 실제로 들어온 외국인 투자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432만 달러)보다 172% 증가한 1177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같은 기간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 실적은 22건, 1200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29건, 531만 달러)보다 신고금액이 2배를 넘어섰다. 기업 16곳이 22건에 걸쳐 1200만 달러를 신고했고, 이 자금이 34차례로 나뉘어 실제 제주에 들어왔다.

제주 외국인직접투자는 중화권 중심의 대규모 부동산 개발 투자가 잦아들면서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연구개발과 정보통신 등으로 투자 분야가 넓어졌고 이들 부문의 자본이 실제 집행되면서 올해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6개, 홍콩 3개, 싱가포르 2개, 미국 1개, 뉴질랜드 1개, 네덜란드 1개, 스위스 1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 찾은 박찬대 인천시장 박찬대 인천시장이 20일 사흘째 화재가 이어지고 있는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현장을 찾아 소방 관계자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미얀마 1개 등 총 16개 기업이 투자를 진행했다.

특히 증가를 이끈 것은 기존 투자기업의 증액이 아니라 제주에 새로 들어온 기업들이다.

제주도는 신규 진입이 늘면 신고

와 도착 실적이 함께 오르고, 사업이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후속투자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협력국장은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외국 기업들이 제주를 투자처로 다시 선택하고 있다”며 “에너지와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유치 활동을 넓히고, 들어온 기업이 사업을 안착시킬 때까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소범기자

제주테크노파크 신임 원장 내달 4일까지 공모

9월 취임 예정… 임기 2년

지원자격은 대학에서 정교수 5년 이상 근무자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자, 기타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경력이 있다고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등이다. 대학교수는 교수직을 휴직하거나 사퇴한 경우에 한해 선임이 가능하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지난달 30일 경영인 원장이 민선 9기 제주도정 출범에 앞서 사임하면서 차기 원장 선임 절차를 밟아왔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상자 108명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의 최종 보급대상자 108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공모에는 총 347명이 신청해 약 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장애 유형별로 시각장애 20대, 청각·언어장애 86대, 지체·뇌병변 장애 2대 등 총 44종 108대가 보급된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영상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독서보조기

기를, 청각·언어장애인에게는 의사소통 보조기와 언어훈련기기를, 지체·뇌병변 장애인에게는 터치모니터 등이 제공된다.

선정된 보급대상자는 제품가격의 20%를 개인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개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보급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개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오소범기자

제주의 범죄예방! 도민의 안전! 우리가 지킨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연합회 제1회 방범대의 날 기념식 및 제2회 직무경진대회

평소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연합회에 깊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고자 하는 제1회 방범대의 날 기념식 및 제2회 직무경진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중한 분들을 모시고 즐거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래

- ◎ 일 시 : 2026년 7월 26일 (일) 오전 10시~
- ◎ 장 소 : 애월읍 체육관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349)
- ◎ 문 의 : 회 장 문성철 (010-7314-9991)
동부연합자율방범대장 임계령 (010-2699-7080)
서부연합자율방범대장 김성희 (010-2636-3366)
서귀포연합자율방범대장 장범순 (010-9460-3217)
사무처장 김효진 (010-3699-1062)

※ 정회 화환을 보내실 분은 “잘화환”으로 보내주시면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연합회 회장 문성철 배상

삼육두유

우리가족 건강음료,
삼육두유

설탕을 넣지 않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 그대로의 맛을 살린 절대 모방할수 없는 맛



삼육식품 Salm Yook www.samyook.co.kr

제주도총판 대표 윤봉실
064)757-1416

그랜드
보청기



24시간 상담/히트브랜드 대상 수상
보청기 고객감사 특별할인!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샅샅을 흔저 전화 주십서!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Q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시라 사거리 북동쪽
시정방면 1층 삼검구이 서광로 225 2층

서시라 사거리
제주시메이스트리얼